

본회, 『양돈산업 경쟁상대국 실태조사』 발표회 및 간담회 개최



본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23일까지 「양돈산업 경쟁상대국 실태조사」 발표회 및 간담회를 각 도별로 순회하면서 실시하였다.

서울·경기, 충남,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에서 시행된 이번 행사는 본회 전동용 회장의 인사말과 노영한 전무이사의 취지발표, 건대 정찬길 교수의 연구발표 그리고 질의 응답식의 간담회로 진행되었으며 각 도청 축산관련 공무원, 축협 관계자, 각 지역의 양돈인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회는 개방화 시대를 맞아 한국 축산의 장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경쟁상대국 양돈산업의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전무하여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정책 설정의 지표로 삼고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양돈산업 경쟁상대국 실태조사」를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이루어냈다. 또한 이번 조사·연구는 축협 중앙회가 연구자금을 협력하고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정찬길 교수가 2년 여에 걸쳐 양돈분야의 경쟁상대국인 미국, 덴마크, 대만, 일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그리하여 본회에서는 도별 순회 발표회 및 간담회를 통하여 국내 양돈농가들과 양돈 관련부처들에게 돼지고기의 무역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키고 생산에 대한 의사결정과 대응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번 「양돈산업 경쟁상대국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나라의 양돈산업 개황 : 사육두수와 사육동향, 생산비와 기술 수준, 도축과 가공, 수송,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가격분산

2) 정부·민간의 양돈산업 지원 계획 : 관련세제와 규제, 직·간접 보조프로그램 연구와 개발, 수출 관련단체와 기능, 생산자 조직과 활동,

3) 돼지고기 시장 : 시장 개황, 소비, 생산, 수출, 수입,

4) 통관 관리 : 관세 부과, 검역 규정, 기타 직·간접 무역규제

5) 각 나라의 경쟁 조건 : 무역 균형, 돼지·돼지고기 가격, 수송, 유통, 생산비, 수출 관련비용, 기술수준 및 수출조건 등이다.

정찬길 교수는 국가간 경쟁력 지표비교 중 “냉장 돼지고기의 경우 Kg당 부위별 가격이 일본은 안심 13,382원, 삼겹살 4,968원으로 고급부위인 안심과 삼겹살의 가격 차이가 2.7배이고 대만은 안심 8,800원, 삼겹살 5,280원으로 1.7배, 미국은 안심 8,400원, 삼겹살 4,184원으로 2.2배인데 반해 한국은 삼겹살 5,700원, 안심 4,000원으로 삼겹살 가격이 안심에 비해 35%가 높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급 부위인 안심과 등심의 가격이 대만과 미국에 비하여 매우 낮기 때문에 일본을 대상으로 지리적 유리성과 더불어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돼지고기 생산비의 국가간 비교에서 “최근에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데마크의 양돈산업에 비하여 훨씬 낮은 비용으로 돼지고기 생산물을 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낮은 사료비와 가공비가 낮은 생산효율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생산비 중 사



료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계열화 체계와 사료효율, 생산성 같은 생산효율을 높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구 발표후에 간담회 시간에는 각 나라간 비교지표에 관한 질의와 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 자조금 제도의 진로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졌다.

이제껏 기술 강습회 같은 세미나, 심포지엄은 많았으나 양돈경영 전망에 대한 우리 양돈산업의 현위치를 알고 앞으로의 세계적 변화에 대응할 대안이 제시된 발표회 및 간담회가 되었다는데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